

“정부·기관 등과 긴밀히 공조… ‘유동성 위기 극복’ 최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신년 기자간담회
주식·채권 장기투자 세제 혜택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 정부 건의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제1 공약으로 ‘유동성 위기 극복’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정부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감독 당국, 언론과 금투업계 모두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 및 그로 인한 자금경색 등으로 인해 국내외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 실물경제 모두 침체를 겪고 있다”며 “또 사모펀드 시장 위축 및 투자자 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주식 거래대금 급감, 증권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여러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당국의 노력으로 최근 회사채·기업어음(CP) 금리 등 단기자금 시장은 안정화하고 있다”며 “협회도 정부 당국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CP 91일물 금리는 지난해 말 5.540%에서 지난 16일 기준 4.860%로, 같은 기간 회사채(AA-) 3년물 금리는 5.662%에서 4.661%로 안정화됐다. 이

어 지난해 말 증권업계의 합의로 출범한 ‘ABCP 매입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형 증권사를 위주로 한 부동산 PF 부실과 관련해서는 “증권사 ABCP 문제는 1조8000억원 규모의 AB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중에서 26%를 매입해 현재로서는 충분한 여력이 있어 A2 증권사 자금경색 문제는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 당국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만, 실물경제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주식과 채권 등 자본시장에 장기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포함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말 기준 주식투자자 수는 1384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2021년 말 기준 2827만명)의 과반에 달한다. 서 회장

은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의 시장 활성화 정책을 정부 당국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을 장기로 투자하고 기업 가치 관련이 아니라 단기적인 차익만 보는 투자 행태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장기투자가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5.4% 종합과세가 아니라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도 하고 세율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에서도 이런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어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장기투자, 기업과 같이 성장하는 투자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그래도 테슬라”… 서학개미 기술주 ‘편식’

해외주식 Click

테슬라 등 기술주 위주 사들이
채권 ETF도 인기 투자처 부상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기술주를 위주로 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연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채권 상장지수펀드(ETF)가 인기를 끌고 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월9~15일)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로 집계됐다. 전주에 이어 순매수 1위를 차지했지만 순매수 규모가 절반 수준에 그친 7283만달러에 그쳤다.

테슬라 주가는 올 들어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지난해 하락분을 일부 만회했다.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주당 399달러에 달했던 테슬라는 올 첫 거래일인 지난 3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104.64달러까지 내렸다. 그러나 이후 주가가 소폭 반등하면서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13일 122.4달러에 장을 마쳤다.

최근 테슬라가 판매 부진 만회를 위한 가격인하에도 수익성 악화가 적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테슬라 주가 긍정론자인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줄어들었으며, 테슬라는 배터리를 비용 감소로 가격을 인하한다고 해도 수익성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순매수 상위권에 개별 종목으로는 대만 반도체업체 TSMC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애플이 이름을 올렸다.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TSMC의 ADR을 전주에 2100만달러 가량을 사모으면서 순매수 상위 5위에 올랐다. 여기에 애플의 주식도 2005만달러 가량을 순매수하면서 6위에 이름이 올랐다.

다만 기술주 매집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관련 업종의 하락세를 점치는 투자자가 우세했다. 순매수 2위에 오른 디렉스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3X ETF(SOXS·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EAR 3X SHS ETF)로 ICE 반도체 지수의 수익률을 역으로 3배를 추종하는 종목

〈지난주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 현황〉

순위	종목명	티커	순매수결계
1	TESLA INC	TSLA	7283만달러
2	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EAR 3X ETF	SXS	5370만달러
3	JP MORGAN ULTRA SHORT INCOME ETF	JPST	2911만달러
4	ISHARES MSCI ACWI ETF	ACWI	2873만달러
5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LTD ADR	TSM	2100만달러
6	APPLE INC	AAPL	2005만달러
7	VANECK JP MORGAN EM LOCAL CURRENCY BOND ETF	EMLC	1974만달러
8	ISHARES IBOX USD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HYG	1551만달러
9	ISHARES JP MORGAN USD EMERGING MARKETS BOND ETF	EMB	1243만달러
10	DIREXION DAILY 20+ YEAR TREASURY BULL 3X SHS ETF	TMF	989만달러

기간: 1월9~15일

/한국예탁결제원

에 5370만달러가 유입됐다. TSMC의 경우만 하더라도 올 들어서만 17% 이상 오른 86.8달러에 거래되면서 반등세가 나타났던 이들 종목의 조정 가능성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개별 종목 외에도 채권 ETF 다수가 순매수 상위권에 오르면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눈에 띈다.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인 ‘JPST’가 3

위(2911만달러), 이머징 현지 통화 채권 ETF인 ‘EMLC’가 7위(1974만달러), 미국내 BBB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 ‘HYG’가 8위(1551만달러), 달러화 표시 신흥국 채권 ETF인 ‘EMB’가 9위(1243만달러),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 금리 3배를 추종하는 TMF 10위(989만달러) 등 5개 종목이 순위권에 들었다.

/이영석 기자 ysl@

예탁원, 부산서 지역인재 육성·숲 조성 등 ESG 실천

Advertorial Corner

취약계층 일자리·지역주민 지원

한국예탁결제원이 본사가 위치한 부산 지역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비롯해 지역인재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 지원, 학교명상숲 조성 등 다양한 지역공헌활동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7일 예탁원에 따르면 예탁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만 60세 이상 시니어가 지역 박물관에서 시설 안내와 전시물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박물관 도슨트 지원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했다.

또 지난 2021~2022년에는 만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사회복지시설에 공 기정화식물로 구성된 수직정원을 보급하고 유지·관리하는 녹색드림지킴

이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예탁원은 부산 소재 여성인력개발센터 4개소와 협력해 부산지역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 지원에도 나섰다.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생활방역전문가 지원사업으로 만 35~65세 중년 여성이 소독·방역·발열 검사 등 생활방역 업무를 수행했다. 지난해에는 중년 여성이 디지털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법 등 강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디지털코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예탁원은 부산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프로그램 ‘KSD 금융·증권 오픈캠퍼스’를 운영해 청년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회사소개, 우리회사 주요 서비스(전자증권제도 등) 교육, 2022년 신입직원 채용안내 및 선배와

의 대화 프로그램 등을 부산지역 대학생들에게 제공했다.

예탁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3월에는 부산시와 ‘부산혁신도시 지역 상생을 위한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부산지역 소재 대학의 IT 및 상경 분야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년간 19조 800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탁원은 부산 소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및 관로확대 등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예탁원 등 부산 소재 9개 기관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조성한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 51억 7000만원 중 예탁원은 총 6억 2000만원을 출연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신한자산운용 美 저평가 가치주 투자 펀드 출시

‘신한 뉴버거버먼 미국 가치주 펀드’

신한자산운용이 미국 저평가된 가치주에 투자하는 ‘신한 뉴버거버먼 미국 가치주 펀드’를 삼성증권 등을 통해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 뉴버거버먼 미국가치주 펀드는 운용자산 500조원 규모의 85년 역사를 보유한 미국계 종합자산운용사의 ‘뉴버거버먼 미국가치주 펀드(Neuberger Berman US Large Cap Value Fund·USD)’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평균 31년 경력을 보유한 미국가치주 투자에 특화된 피투자펀드 운용팀이 전담한다.

해당 펀드는 물가 상승기에 강한 가치주에 선별 투자한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기준 6.5%의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을 보이며, 이러한 높은 물가상승률은 향후 2023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성장주보다 탄탄한 재무 상태와 견조한 기업실적을 갖춘 가치주가 성장

주들 보다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S&P500 가치주(Value)/성장주(Growth) Index 지수를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금리인상을 예고한 2020년 하반기 이후 가치주가 성장주를 추월해 현재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박정호 신한자산운용 펀드솔루션팀장은 “가치주를 주목하기에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조성됐으며,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밸류에이션 매력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가치주를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으로 판단된다”며 “뉴버거버먼 미국가치주 펀드는 2006년 설립 이후 꾸준히 미국 대형가치주 유형 대비 초과 성과를 달성하고 있고, 3년 이상 구간에서는 상위 2% 이내를 기록하면서 월등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 뉴버거버먼 미국가치주 펀드는 환헤지형으로 출시되며, 연간 총보수는 수수료미정구운라인형(C-e) 기준으로 총보수 0.850%다.

/박미경 기자